

キム・ソラ

2009-11 パローダ大学大学院美術学部絵画専攻修了 (インド)
 2001-06 忠南大学芸術学部絵画専攻卒業 (韓国)

個展

2016 「私たちは塵を這う」 Mugaksa Lotus Gallery (光州、韓国)
 2015 「記憶の触覚」 Scholz & Jung Gallery (光州、韓国)
 2013 「Momentary Sonorant」 Sakshi Gallery (ムンバイ、インド)

グループ展

2017 アジア現代美術展 / アジア女性アーティスト 全羅北道立美術館 (全州、韓国)
 2016 第 11 回光州ビエンナーレ 「第八の風土 (アートは何を為すか?)」 (光州、韓国)
 2015 国際交流女性現代美術展 「アートの断面 - A Cross Section of Art」
 BankART Studio NYK (横浜、日本)
 2013 「第 1 回 - 現代美術展」 Sakshi Gallery (ハイドラバッド、インド)
 2011 「インターシャ: 記憶の痕跡」 Sakshi Gallery (ムンバイ、インド)

김 설 아

2009-11 바로다 마하라자 사야지라오 예술대학 순수예술학부 석사과정 졸업
 2001-06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16 '우리는 먼지 속을 기어갔다' 무카사로터스갤러리, 광주
 2015 '기억의 촉각' 솔츠앤쥬갤러리, 광주
 2013 'Momentary Sonorant' 삭시 갤러리, 뭄바이, 인도

단체전

2017 '아시아 현대 미술전 /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전북도립미술관, 전북
 2016 '제 11 회 광주비엔날레 (제 8 기후대 - 예술을 무엇을 하는가?)' 광주비엔날레관, 광주
 2015 'A Cross Section of Art' 뱅크 아트 스튜디오 NYK, 요코하마, 일본
 2013 'First Edition - An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t' 삭시 갤러리, 하이드라바드, 인도
 2011 'Intarsia: Memory Trace' 삭시 갤러리, 뭄바이, 인도
 'Feminine Syntax Personal Biographies' 레몬그래스호퍼 갤러리, 아흐메다바드, 인도

Kim Seola

2009-11 M.VA M.Painting, Faculty of Fine Arts, the M. S. University of Baroda, India
 2001-06 B.FA Painting, Chunnam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olo Exhibitions

2016 *We crawled through the dust*, Mugaksa Lotus Gallery, Gwangju, South Korea
 2015 *The Tactility of Memory*, Scholz & Jung Gallery, Gwangju, South Korea
 2013 *Momentary Sonorant*, Sakshi Gallery, Mumbai, Indi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Asia Contemporary Art Exhibition/Asia Women Artists*, Jeonbuk Museum of Art, Jeonbuk, South Korea
 2016 *The 11th Gwangju Biennale - THE EIGHT CLIMATE, WHAT DOES ART DO?*, Gwangju Biennale, Gwangju, South Korea
 2015 *A Cross Section of Art* Bank ART STUDIO NYK, Yokohama, Japan
 2013 *First Edition - An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t* Sakshi Gallery, Hyderabad, India
 2011 *Intarsia: Memory Trace* Sakshi Gallery, Mumbai, India
Feminine Syntax Personal Biographies Lemongrasshopper Gallery, Ahmedabad, India

BankART 1929

〒231-0002 横浜市中区海岸通3-93-9 Kaigan-dori, Naka-ku, Yokohama 231-0002
 TEL: 045-663-2812 E-mail: info@bankart1929.com

Support: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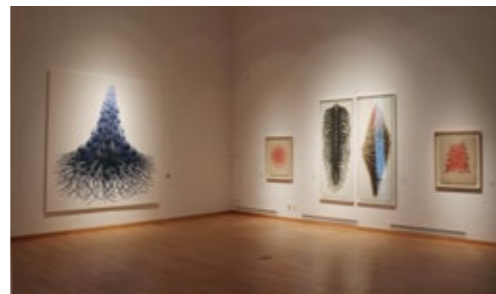
Blind asb, Acrylic on paper, 30cm×42cm, 2015



Blind asb, Acrylic on paper, 30cm×42cm, 2015



Gwangju Biennale- The Eight Climate, What does art do, 2016



Jeonbuk Museum of Art
 Asia Contemporary Art Exhibition-Asia Women Artists 2017

横浜・韓国アーティスト交流プログラム 2017

The Artist Exchange Program YOKOHAMA & KOREA 2017

Kim Seola
 김 설 아
 金雪雅
 キム・ソラ



Kim Seola 「The Tease of Water」

2017.12.1 Fri. - 10 Sun. 11:00-19:00 BankART Studio NYK 1F/Mini Gallery



The Tease of Water, Ink on silk, 80cm×350cm, 2017



横浜・韓国アーティスト交流プログラム2017
The Artist Exchange Program YOKOHAMA & KOREA2017

キム・ソラ / Kim Seola

「The Tease of Water」

2017年12月1日[金]～10日[日] 11:00-19:00
BankART Studio NYK 1F/Mini Gallery



「芸術家の視線はどこに向かうべきであり、その思考を可能にする力はどこから来るか」について答えを探し続けている。

私の絵画は、自身が描こうとしている対象との会話であり、経験と記憶からなる。作品の制作過程で、周りの対象をよく観察し、手に触れてから描きはじめることを行って来た。その観察と採集を通じて、私は小さな生命体の営みそのものに惹かれるようになった。思い起こすと、私の作品は自身の故郷が汚染され、人が住むことのできない場所になった時に覚えた心の嘆きであり、ある日、実家が灰になってしまった瞬間の記録だった。

都市に浮遊する埃、灰、鳥の羽、虫のような、その存在に気づき難いものたちの宇宙から、過去の記憶を想起させるイメージを探し出し、その触感までを表現することで生のイメージを可視化することに私の関心が向いていた。

その関心とともに、今年の横浜・韓国アーティスト交流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ことになり、創造都市横浜が提案する都市再生の美学を実践しているBankARTの活動に集中しようとした。

都市再生とは、都市を一つの生物的環境として認識し、過去と現

在が共存する中で、人々が交流する共同体的空間を追求することなのではと私は考えた。とらえどころのない都市を「どうやって有機的な生物環境として理解し、作品制作に繋げる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考える必要があった。身体感覚を用いて都市を理解しようと思い、横浜を歩き続け、出掛けるたびに気候と湿度、光や色に意識を集中させた。そんななか、水は都市全体にいきわたり、生の痕跡を残してきたことを観察することができた。水によって腐食されたものは、現在の形に至るまでの変化と拡張の痕跡が緊張感を与えていた。カビを観察しながら、細密な染みの線が繋がりが合っていることに気がつき、生と死、存在の重々しさを感じた。観察を続けることによって、カビ菌の菌糸が作り出す形に深い関心を持ち、都市における個々の存在が相互作用し、移り変わっていくという比喩的な考えが、浮かんで来た。

今回の体験は、過去と現在を繋ぐ連想空間として横浜を理解し、生命と物質、形の本質、触覚の視覚的表現が一つの作品として具体化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れた。

キム・ソラ



The Tease of Water, Ink on silk, 50cm×50cm, 2017

‘ 예술家の視線は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하며 그 무엇을 보게 하는 힘은 어디로 부터 오는 가 ’ 를 탐구 하고 있다. 나의 회화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과의 대화이며 나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는 행위의 결과이다. 오랜 시간 동안 주변의 대상을 관찰하고 만지고 느낀 후 그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시각적 관찰과 채집을 통해 작은 존재들의 살아내기 위한 움직임 그 자체에 이끌리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나고 자랐던 고향이 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사람이 거주 할 수 없는 모습들로 변모해왔던 몸부림 이었으며 어느 날 나의 집이 재가 되어버린 순간들의 기록 이었다. 도시에 부유하는 먼지, 재, 깃털, 벌레 같은 존재하지만 인지하기 힘든 수많은 대상들에서 나의 기억에 맺힌 이미지를 찾아내어 세밀한 촉감을 통해 생의 이미지를 가시화 시키는 것이 나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와 함께 이번 2017년 요코하마 뱅크아트 예술가 레지던시를 참여하면서 요코하마라는 도시가 제안하는 것과 버려진 곳을 개조해 소생시키는 도시 재생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는 뱅크아트의 여정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도시 재생이란 어쩌면 도시를 하나의 서식처로 인식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서로의 삶을 소통 교류하는 공동체적 공간을 추구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도시에 존재하지만 인지하기 힘든 작은 대상들, 그 생존의 움직임에 집중해 왔던 내가 어떻게 이 도시를 유기적인 서식처로 이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요구되었다. 촉각적인 감각으로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걷는 일을 반복하였고 그 때마다의 날씨와 습도 빛과 색에 집중하게 되었다. 요코하마라는 도시 전반에 흐르고 있는 물은 유기적으로 도시 전체에 번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생의 습도는 도시의 표피에 닿아 여러 흔적을 남겨온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물에 의해 부식된 형상들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대상을 넘어선 확장된 형태의 미묘한 긴장을 담지하고 있었으며 곰팡이 얼룩들은 미세한 선들로 연계되어 생과 사를 관통하며 존재 자체의 숙연함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곰팡이의 미세한 선(균사)으로 연결 지어진 형상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도시에 존재하는 각각의 대상들이 서로 연계되며 변형되어 가는 것에 천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시선이 이 도시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상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생명과 물질이 만나는 형태의 본질과 시각적인 촉감이 하나의 작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김 설 아